

영국의 축구 홀리건 영화에 나타난 1970~80년대 캐주얼즈 하위문화의 패션 특성

윤도연·서성은*

가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학사
가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약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발생하여 90년대까지 영국의 축구 팬덤 문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처음으로 디자이너 스포츠웨어 트렌드를 주도하였던 캐주얼즈에 관해 하위문화 패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문헌 연구, 온라인 기사 및 영상자료를 통해 캐주얼즈의 유래와 하위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 패션 특성을 도출하였다. 스킨헤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캐주얼즈는 영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홀리건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당시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실증 연구는 캐주얼즈의 전성기였던 80년대 전후 영국의 캐주얼즈 하위문화를 다룬 영상 6편을 선정하여 패션이미지를 도출하고, 캐주얼즈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에서 영화 속 실제 상품이미지를 함께 선별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총 36개의 이미지를 상의, 하의, 외투, 신발과 액세서리의 네 가지 카테고리 분류한 후, 주요 아이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영화의 주요 내용과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캐주얼즈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캐주얼즈 패션은 첫째, 80년대 전후 축구 홀리건의 새로운 드레스 코드이자 집단주의 동지애를 나타내는 유니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캐주얼즈 패션은 당시 고가의 유럽 디자이너 스포츠웨어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뉴 테라스 웨어로 유럽 상류층의 물질주의와 스포츠 패션 문화에 대한 동경을 모방과 파리로 표현하였다. 셋째, 캐주얼즈 패션은 축구 팬덤 문화의 패션 트렌드 확산을 촉진한 최초의 하입 스포츠웨어로 단순한 운동복이 아닌 당시 이국적 취향의 세련된 스포츠웨어 스타일의 개발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70~80년대 주요 하위문화에 비하여 주목받지 못했던 캐주얼 하위문화를 패션 측면에서 살펴보고, 뉴 테라스 웨어로서 주요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현대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콘셉트 개발과 디자인 기획에 중요한 문화적 영감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캐주얼즈, 홀리건, 캐주얼 하위문화 패션, 테라스 웨어, 스포츠 스트리트 스타일

*교신저자: 서성은, sesuh@gachon.ac.kr

접수일: 2023년 8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23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3일

I. 서론

최근 문화 예술 분야에서 복고(retro)를 새롭게 (new) 재해석하여 즐기는 경향을 의미하는 뉴트로(newtro) 트렌드의 인기가 부각되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는 스포츠웨어의 일상화에 따른 애슬레저(athleisure) 트렌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며, 최근에는 90년대 뉴트로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하이엔드 디자이너들도 스포츠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실용성뿐 아니라 유스 컬처(youth culture)의 개성과 자유분방함을 더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Kim, 2017; Oh, 2022).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로 휠라(Fila)는 2010년대에 브랜드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7년부터 1970년대 감성을 재현한 복고풍 운동화 ‘디스럽터(Disrupter)’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으며 스포츠화를 데일리룩 아이템으로 대중화하였다(Heo, 2019). 또한, 최근 하위문화적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이너들이 패션계에 등장하며 트렌드를 주도하였다. 러시아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 카파(Kappa), 휠라 등과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와 하위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 바 있다. 루브친스키는 18SS 시즌에 버버리(Burberry)와도 협업을 진행하며 로고 플레이와 컬러 블록이 눈에 띄는 스포츠 스트리트 감성의 제품들을 출시하였다(Ma, 2018; “전통 스포츠 패션 브랜드”, 2017). 2018년에는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Off-White)를 이끌던 버질 아블로(Virgil Abloh)가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되었는데, 이는 스트리트와 럭셔리 패션의 경계가 허물어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겠다(Kim, 2021).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에 주목하여,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축구 팬덤 문화에서 발생하여 90년대까지 지속되며, 처음으로 디자이너 스포

츠웨어 트렌드를 주도하였던 캐주얼즈(casuals)의 하위문화와 패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Redhead, 2004). 스킨헤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캐주얼즈는 영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홀리건(hooligan)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당시 고가의 유럽 디자이너 스포츠 의류 착용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축구 서포터즈이다(Magee, 2017). 캐주얼즈의 유래와 하위문화적 특성을 다양한 문헌 연구와 온라인 기사 및 영상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패션 특성을 도출하였다. 실증 연구는 캐주얼즈의 전성기였던 80년대 전후 영국의 캐주얼 하위문화를 다룬 영상 6편을 선정하여 패션이미지를 도출하고, 캐주얼즈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에서 영화 속 실제 상품이미지를 함께 선별하여 주요 아이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1970~90년대 대표적 하위문화 패션 및 트렌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스킨헤드(skinhead), 펑크(punk), 히피(hippie), 스케이트보드(skaters), 차브(chav) 등에 관하여 이루어져 왔다(Chaney & Goulding, 2016; Eom, 1988). 특히 Borgeson and Valeri (2017)는 스킨헤드의 문화와 역사, 패션 특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스킨헤드 하위문화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캐주얼즈는 7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80년대 전성기를 이루고 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영국 백인 노동자계층의 홀리건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당시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캐주얼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축구 서포터즈 문화와 홀리건의 폭력성, 유스 컬처와 축구 문화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Redhead, 2012; Thornton, 2003). 또한, 캐주얼즈의 패션이 당시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 캐주얼즈가 당시 영국 하위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룹임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Thornton, 2003). 그러나 캐주얼 하위문화를 패션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며, 캐주얼즈의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이

스킨헤드 스타일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독립적인 하위문화를 구축한 캐주얼즈의 패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콘셉트 개발과 디자인 기획에 중요한 문화적 영감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캐주얼즈의 유래와 개념

캐주얼즈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작가 필 손턴(Phil Thornton)은 저서, 「Casuals」에서 홀리건들 사이에서 고가의 스포츠웨어를 입기 시작한 현상을 최초로 저술하면서, 1970년대 후반 시기의 홀리건 중 일부를 캐주얼즈로 정의했다(Thornton, 2003). 캐주얼즈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영국의 축구 문화에서 홀리건의 유래와 특성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홀리건

‘홀리건’이라는 단어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유래하였다. 어원에 관하여는 동유럽에서 유래한 말 또는 유명한 불량배 패거리였던 ‘홀리갱(Hooly’s Gang)’에서 와전되었다는 설 등 다양하다(Kim, 2016). 그러나 19세기 말 런던의 밤거리를 지배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불량아, 패트릭 홀리건(Patrick Hooligan)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의 성은 1899년 영국 작가 클라렌스 록(Clarence Rook)의 희가극 『홀리건 나이트(The Hooligan Nights)』에서 소란스러운 아일랜드 일가족의 성으로 사용됐고, 이 작품과 함께 거리의 불량자 또는 난봉꾼이라는 의미로 영국 옥스퍼드사전에 등재되었다(Kim, 2016).

축구가 영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은 19세기 전반 유럽의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지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빈부 격차에 따른 계층 간 갈등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북부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축구 클럽이 결성되었고, 축구는 영국 사회에서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 의식을 지닌 백인 노동자 계급이 즐기는 주요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다(Kim, 2005). 홀리건이 본격적으로 축구팀의 극성 폭력 집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영국에서 당시 축구의 높은 인기로 인해 TV에서 경기가 중계되자 대중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과 서포터즈가 생기면서 축구 경기 전후 서포터즈 간의 견제와 싸움이 일어났고, 집단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영국 보수당 정권 아래에서 사회복지가 축소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갈 곳 없게 된 실업자와 빈민층들이 축구장에 몰렸다. 이들은 매 경기 후 보수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축구장에서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흥분한 관객들이 난동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거리 한 곳을 점령하는 대규모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다(Kim, 2006). 홀리건의 난동이 극심해지면서 이들은 극성 축구팬보다는 편을 가르고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사회 불만 세력에 가까워졌다. 1970년대에는 헤드 헌터(Head Hunters), 인터 시티 펌(Inter City Firm) 등 악명 높은 슈퍼 홀리건(Super Hooligan)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홀리건은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Kim, 2015). 이때부터 홀리건은 축구장의 난봉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2) 캐주얼즈

손턴은 스킨헤드, 펑크와 더불어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새로운 청년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 추종자들이 폭력조직을 형성하고, 마침내 캐주얼즈라는 이름이 붙기 전까지 스캘리즈(Scallies), 페리 보이즈(Perry Boys), 트렌디즈(Trendies) 그리고 드레서즈(Dressers)로 불렸다고 하였다(Adz & Stone, 2018; Eror, 2015; Thornton, 2003). 당시 어떤 축구팀 팬덤이 캐주얼즈 문화를 탄생시켰는가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의 홀리건, 페리 보이즈나 리버풀(Liverpool)의 홀리건, 스캘리즈가 주도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스캘리즈는 70년대 중 후반 리버풀이 유러피안 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던 시절, 리버풀 팀과 함께 유럽 전역을 따라다녔던 홀리건이다. 당시 리버풀 FC가 유럽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을 따라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유럽 대륙의 축구팬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현지 유럽 브랜드를 발견했다. 이들이 영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럽 브랜드의 의류를 구매하거나 때로는 훔쳐서 영국에 들여와 스포츠웨어 스타일을 확립했다는 것이 리버풀 발상 설이다(Adz & Stone, 2018; Burton, 2017; Dresser, 2017; Osgerby, n.d.).

영국 맨체스터 근방의 프레스트위치(Prestwich)라는 곳에서 성장해 1970년대 후반 현대 유스 컬처에 대해 책을 쓴 작가 이안 휴(Ian Hough)는 70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갱인 페리 보이즈를 통해서 캐주얼즈와 홀리건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페리 보이즈는 맨체스터의 모드 계보에서 탄생하여 노던 소울(Northern Soul)과 축구를 즐기던 무리이며, 이들은 자기 표현을 위해 패션이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경기장의 폭력보다는 외모에 더 신경을 썼던 무리였다(Hough, 2007). 휴는 캐주얼즈가 페리 보이즈에서 파생하여 탄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캐주얼즈라는 말은 후에 여러 하위문화 역사가들에 의해 덧붙여진 말이며, 영국 전역에 걸쳐 스포츠웨어를 찾는 마니아 층이 존재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캐주얼즈의 기원이라고 하였다(Adz & Stone, 2018; Hough, 2007).

현대에 캐주얼은 광의로 편안하고 매일 사용하기 좋은 것, 패션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은 복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캐주얼즈를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주로 80년대에 영국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광적 축구 마니아인 홀리건이 왕성하게 활동했을 당시, 디자이너 브랜드의 스포츠웨어를 착용하며 구별된 가시적 정체성을 확립했던 축구 서포터스로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 이러한 캐주얼즈 집단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캐주얼 하위문화로 지칭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캐주얼즈의 하위문화적 특성

1) 영국 축구의 테라스(terrace) 문화

영국 캐주얼 하위문화는 모즈와 스킨헤드의 전성기 이후 1970년대 후반 영국 축구 시즌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북부 머지사이드(Merseyside)의 잉글랜드가 시작이었고, 맨체스터에 이어 런던과 스코틀랜드 도시들로 확장되었다(Thornton, 2003).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축구가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특히 영국에는 각 지역마다 축구팀이 있고,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각 축구팀을 응원하는 무리들이 타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 응원할 정도로 국민 스포츠이다.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3~40명까지 무리를 지어 기차 혹은 대형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테라스는 영국 영어로 경기장(stadium)의 끝대 뒤편 지붕이 없는 관중석을 뜻한다. 축구 경기장의 다른 좌석에 비해 테라스 좌석이 가장 저렴했기에 노동자 계급의 홀리건들이 주로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곳이 되었다 (“Standing in football”, n.d.).

이러한 영국의 축구 응원방식에서 나온 문화를 테라스 컬처 혹은 테라스 스타일이라고 한다. 축구 경기 중에 테라스에서 상대팀 응원단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욕설과 폭력은 홀리건

문화 이전부터 캐주얼즈까지 유지되어 온 하위문화적 요소이다. 축구 홀리건은 경기 전날 경기장 근처 펍(pub)에서 은신하며 경쟁 팀 축구 서포터즈를 공격했다. 이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응원하는 팀이 지면 화가 나서 난동을 피우고, 이기면 상대 팀 팬들을 조롱하며 싸움을 일으켰다. 또는 원정을 떠난 다른 지역 경기장을 훼손하거나 상대팀 서포터즈들의 은신처를 찾아내 패싸움을 걸기도 하였고, 패싸움할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다른 홀리건 집단과 일종의 전투를 일으키기도 했다(Perryman, 2013). 영화『Away Days』에서 등장인물 엘비스(Elvis)와 카티(Carty)가 항상 기차를 타고 영국 북부 황무지를 여행하며, 트랜미어(Tranmere)지역의 개방형 테라스와 크루이(Crewe), 돈캐스터(Doncaster), 할리팩스(Halifax) 등의 주요 거점에서 패싸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계층의 축구 마니아로서 홀리건의 폭력성, 마약, 클럽 문화보다는 패션의 관점에서 캐주얼즈의 하위문화적 집단성과 차별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 뉴 테라스 패션

캐주얼즈 하위문화는 1980년대 초 영국에서 많은 홀리건들이 디자이너 의류 라벨과 값비싼 운동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Didcock, 2005; Redhead, 2004). 당시 유럽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있었던 리버풀 홀리건들은 다른 축구 팬들과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럽 대륙 패션을 입는 최초의 영국 축구 팬이었다. 이들은 리버풀이 1970-80년대에 유러피안 컵에서 강력한 경기를 펼치는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유럽 패션을 접하며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British style genius”, 2013). 리버풀 홀리건들은 영국인들에게 생소한 브랜드를 영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일종의 영예로운 훈장으로

여겼으며, 밀라노, 파리 및 유럽의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며 씨피 컴퍼니(CP Company), 세르지오 타키니(Sergio Tacchini),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휠라, 디아도라(Diadora), 엘레세(Ellesse), 라코스테(Lacoste) 및 랄피나(L' Alpina) 등)와 같은 유럽 고가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 전날을 보냈다고 한다(Magee, 2017).

축구 홀리건주의와 캐주얼 하위문화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었는데, 캐주얼즈의 패션은 팬들이 축구 셔츠를 입고 눈에 띄기보다는 군중과 섞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British style genius”, 2013). 캐주얼즈는 경찰의 관심과 라이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클럽 색상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 그룹에 잠입하고 술집에 들어가기가 더 쉬웠다(“80s casuals”, n.d.). 당시 영국의 축구장을 점령한 대부분의 홀리건들은 스킨헤드 집단이었으며, 경기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축구장 내 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경찰들은 스킨헤드의 상징인 닥터 마틴(Dr. Martens) 위커의 끈을 풀거나, 아예 경기장 밖에 신발을 벗어 놓고 입장 시키기도 했다(Error, 2015). 때문에 홀리건들이 경찰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당대 유명한 테니스 스타들처럼 입기 시작한 것이 캐주얼즈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들은 당시 테니스의 흥행과 함께 유행하던 테니스 웨어를 착용해서 스킨헤드를 주로 단속했던 경찰의 눈에 띄지 않고 경기장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Fazal, 2018). 또한 값비싼 옷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도록 위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캐주얼즈는 스킨헤드와는 다른, 그들만의 영토와 집단이 존재했고 비슷한 패션을 착용한 다른 팀 홀리건들에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위상을 잘 전달해야 했다. 머리는 웨지 헤어컷(wedge haircut)으로 잘랐으며, 유럽의 스포츠웨어를 입고,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Stan Smith)를 착용했다. 많은 브

랜드 중 특히 프레드 페리(Fred Perry) 폴로 셔츠가 이들의 특별한 상징이었다. 토요일 축구 경기가 끝난 뒤 바로 나이트 클럽에 가야 했기 때문에 브랜드 유명세도 있으면서 활동성이 보장된 옷을 착용했다(Error, 2015; Hough, 2007; Redhead, 2004).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의 상류층 감성과 스포츠웨어의 활동성이 가미된 캐주얼즈만의 스타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이 클럽 유니폼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하며 응원했던 기존 홀리건들의 전형적인 테라스 웨어에서, 고가의 디자이너 스포츠 의류를 착용하며 캐주얼즈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뉴 테라스 웨어로서의 상징성, 상류층을 동경하는 브랜드 레이블 집착성,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지향성을 지님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관점을 문헌,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3. 캐주얼 하위문화의 주요 패션 브랜드

캐주얼즈 패션은 1970년대 중·후반 리버풀과 맨체스터에서 처음 등장한 영국 헤리티지 스타일의 결합이었고, 주로 1980년대 영국의 백인 남성 노동계급의 패션을 지배하게 된 스타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남성복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퍼진 하위문화 패션 사례라고 할 수 있다(MacKenzie, 2019).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은 비교적 당파성이 강한 축구 경기에 걸맞은 지역적 특성과 팀 특성에 기반하여 발생했다. 선행연구(Adz & Stone, 2018; Hewitson, 2008; MacKenzie, 2019; Thornton, 2003)에서는 당시 캐주얼즈가 선호하였던 의류 유형과 브랜드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휠라, 엘레세, 세르지오 타키니, 디아도라, 카파 및 라코스테와 같은 유럽 스포츠웨어 레이블이 포함된다. 또한, 영국의 정통성 있는 브랜드 레이블로 슬레전저(Slazenger), 프레드 페리, 프링글스 오브 스코틀랜드(Pringle of Scotland), 라

일 앤 스콧(Lyle & Scott) 및 데님 레이블로 리바이스(Levi's), 리(Lee Jeans), 랭글러(Wrangler) 등이 있다. 또한, 캐주얼즈 패션 온라인 매장, 80s 캐주얼즈 레식스를 운영하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영화, 『The firm』을 비롯하여 『This is England』, 『The business』와 같은 영화에 의상을 공급했던, 닐 프리멧(Neil Primett)은 캐주얼즈의 하위문화가 자체 유니폼과 핵심 브랜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멧은 1979년에서 1985년 사이의 전형적인 캐주얼즈 복장을 구성한 레이블로서 파라(Farah), 로이스(Lois), 디아도라, 나이키(Nike), 아디다스, 푸마(Puma), 세르지오 타키니, 휠라, 엘레세, 라코스테, 라일 앤 스콧, 프링글, 카파 등을 언급하였다(“Football casuals”, n.d.).

본 연구를 통해 캐주얼즈의 디자이너 레이블 지향성과 특정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강하다는 특성을 확인하였고, 실증 연구를 통해 테라스 패션의 구체적 특성을 디자인 요소보다는 캐주얼즈가 채택한 브랜드와 아이템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영화에 나타난 대표적 브랜드를 살펴보면, 캐주얼즈 패션은 70~80년대 테니스, 골프 웨어 브랜드의 프레피 아이템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프레드 페리는 테니스 스타 프레드 페리의 이름을 딴 레이블로 1970년대 스킨헤드부터 1980년대 초 캐주얼즈 문화에서까지 매우 인기가 있었고, 영국에서 축구 시즌 개막 즈음이 되면 각 지역의 팀 컬러에 맞는 폴로 셔츠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색상의 셔츠를 출시하였다(Fred Perry, n.d.). 세르지오 타키니도 테니스 스타를 통해 유명해진 이탈리아 브랜드이다. 테니스 선수 존 맥엔로(John McEnroe)가 윔블던(Wimbledon)에서 값 비싼 세르지오 타키니의 폴로 셔츠와 트랙 탑을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해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알려졌고, 캐주얼즈에게 빠져서는 안 될 필수 브랜드가 되었다(Sergio Tacchini, n.d.). 휠라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한 세탄다(Settanta) 및 테린다(Terrinda)와 같은 트랙 재킷이 캐주얼즈에게 즉각적인 클래식

이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휠라 의류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휠라를 착용하는 것은 다른 축구 마니아들보다 특별함을 나타내는 가시적 수단이 되었다(Error, 2015).

프링글스 오브 스코틀랜드는 캐주얼즈 하위문화를 통해 인기를 얻은 스코틀랜드 니트 웨어(knitwear) 회사로 고대 스코틀랜드 아가일 패턴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다이아몬드 무늬 때문에 캐주얼즈가 테라스에서 입는 옷으로 자주 채택되었다(Error, 2015; Pringle of Scotland, n.d.). 엘레세도 스키 웨어와 테니스 의류를 생산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출발하여, 비비드한 색상과 스트리트웨어 스타일로 캐주얼즈에게 빠르게 채택되었다. 엘레세는 당시 유럽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를 구매하여 전체를 스타일링하기도 했던 캐주얼즈에게 선택의 대상이 될 정도로, 80년대 캐주얼 하위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브랜드가 되었다(“80s casual”, n.d.).

스톤 아일랜드는 198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랜드로, 재킷의 팔에 새겨진 작은 나침반 로고는 축구와 팀에 대한 애착,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 그리고 경제력을 상징하여 많은 축구 팬의 필수품이 되었다(Error, 2015). 『Green street hooligans』에서는 스톤 아일랜드 재킷과 로고를 중심으로 캐주얼즈의 시각적 정체성이 잘 표현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축구 관련 영화에 등장했을 정도로 캐주얼 하위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데이터 수집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자료와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대중성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매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0~90년대 영국 캐주얼

얼즈의 하위문화와 패션 특성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2000년대 영상 매체 중 영화 5편(『The football factory(2004)』, 『The business(2005)』, 『Green street hooligans(2009)』, 『Away days(2009)』, 『The firm(2009)』), 다큐멘터리 1편(『Casuals: The story of the legendary terrace fashion(2011)』)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테라스 문화와 패션을 전문성 있게 소개하는 웹사이트, 테라스패션(www.terracefashion.com)에서 선정한 대표 영화들, 축구 전문 평론가, Lee(2013)의 「킥 더 무비」에서 ‘캐주얼(casual)’을 알아야 홀리건 영화가 보인다’ 목록에 선정된 영화들, 영국에서 80년대 캐주얼 클래식 의류 매장(<https://www.80scasualclassics.co.uk>)을 운영하는 닐 프리멧(Neil Primett)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영화(Taylor, 2017), 그리고 같은 매장의 컬렉터, 콜린 조블링(Colin Jobling)이 언급한 ‘캐주얼즈 패션을 부흥시킨 영화’(Taylor, 2018)들을 중심으로 총 6편을 선정하였다.

『The football factory』는 영화와 같은 제목을 가진 존 킹(John King)의 소설 『The football factory』를 바탕으로 닉 러브(Nick Love)가 각본 및 감독을 맡은 영국 스포츠 영화로, 적대적 관계로 유명한 밀월(Millwall)과 첼시(Chelsea) 서포터즈 간의 경쟁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The business』도 러브 감독의 범죄 영화로, 스페인의 코스타 델 솔(Costa del Sol)에 살고 있는 영국 국외 도피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마약 수입 사업에 젊은 런던 토박이 두 명이 뛰어들며 겪는 상황을 보여준다. 영화는 1980년대 영국의 분위기를 패션, 음악,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맥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The firm』도 러브 감독의 축구 폭력주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국의 드라마 영화로, 1970~1980년대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의 축구 회사, 인터 시티 펌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Green street hooligans』는 영국의 축구 홀리건에 관한 영국계 미국 독립 영화로, 한 미국 대학생이 영국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축구 서포터즈인 웨스트 햄(West Ham)과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Away days』은 케빈 샘슨(Kevin Sampson)이 1979년 영국 북서부를 배경으로 당시 패션과 음악, 청년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출간한 책 『Awaydays』(1998)을 각색한 영화이다. 영화는 트랜미어 로버스(Tranmere Rovers: 트랜미어 로버스 FC는 Wirral) 반도에 위치한 잉글랜드 머지사이드 주의 도시인 버кен헤드(Birkenhead)를 본거지로 하는 축구 클럽 팀)의 홀리건 문화에 관여하는 등장인물을 통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영화의 배경을 리버풀이 아닌 트랜미어로 설정하여 영국 북서부 지역에 퍼진 캐주얼즈 스타일을 보여준다.

『The casuals』는 영국에서 리버풀, 맨체스터 및 런던과 같은 도시를 휩쓸었던 캐주얼즈 하위문화에 관한 통찰력 있는 다큐멘터리로 당시 캐주얼즈였던 피터 후튼(Peter Hooton)과 같은 실존 인물들의 인터뷰를 제공한다.

2. 연구 방법

선행연구, 서적, 간행본 등 다양한 문헌 연구와 온라인 기사 자료,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모션 비디오와 같은 영상자료를 통해 캐주얼즈의 유래와 하위문화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고, 캐주얼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을 도출하였다. 실증 연구 대상은 캐주얼즈의 전성기였던 80년대 전후 영국의 캐주얼 하위문화를 다룬 영상 6편으로, 영화 5편과 다큐멘터리 1편을 선정하였다. 연구 모델 <Figure 1>과 같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상 자료에서 등장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캐주얼즈 의상이 등장하는 장면을 영상물 당 최소 10~50개 이상 캡처하여 총 372개의 패션이미지를 1차 도출하였다. 1차 이미지에 관하여 패션 전문가 4인(디자인 전공 교수, 석·박사 연구원 2인, 학부생 연구원 1인)이 중복된 아이템과 스타일을 제외하고, 아이템의 정면 혹은 그 특징이 잘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선별하여 각 영상물 당 10장 내외로 총 67개의 패션이미지를 2차 도출한 후, 패션 아이템 별로 유형화하고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영화의 사례를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외 하위문화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패션 관련 문헌 및 기사 자료를 통해 캐주얼즈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검토하였다. 영화의 특성상 움직이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물의 저해상도를 보완하고, 의상의 디자인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캐주얼즈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오리지널 아이템에 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영화 내용과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로고, 아이템의 디테일을 통해 해당 브랜드를 확인한 후, 실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의 아카이브에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오리지널 아이템을 영화이미지와 함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별히, 캐주얼 하위문화의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전문 매장, 80s캐주얼클래식스(<https://www.80scasualclassics.co.uk>)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캐주얼즈 패션 제품의 이미지와 관련 내용을 수집하였다. 80s캐주얼클래식스는 『The firm』, 『The business』의 의상 공급사로 참여할 정도로 캐주얼즈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와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다량의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 선정과 검증에 용이하였다.

최종적으로 2차 선별된 67개의 이미지 중 중복된 브랜드를 최소화하고, 영화 속 브랜드와 일치하는 실제 패션 상품을 중심으로 재 선별하여, 영화 속 패션 이미지 14개, 실제 브랜드 상품이미지 22개의 총 36개의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상의, 하의, 외투, 신발과 액세서리(top, bottom, outer, shoes & accessories)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후 분석하여 <Table 1~3>과 같이 캐주얼 하위문화 패션의 주요 아이템과 브랜드 특성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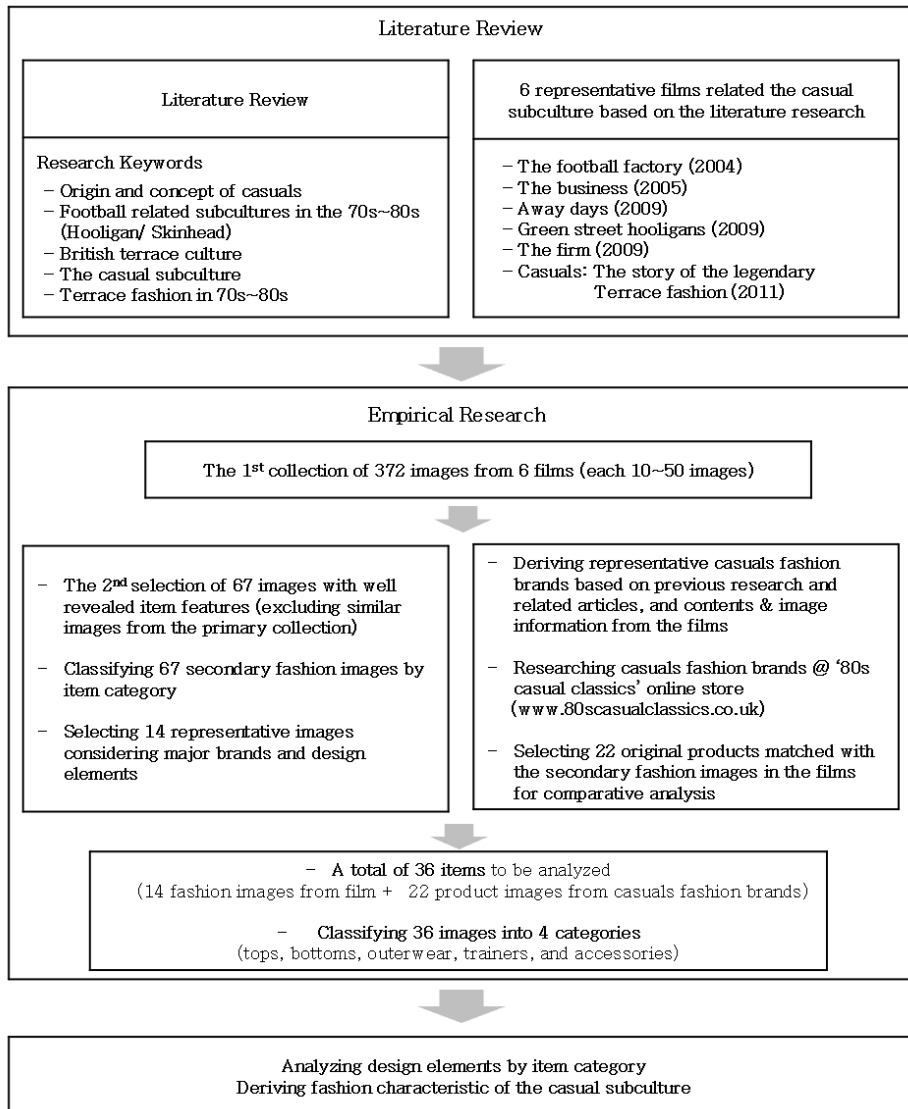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IV. 캐주얼즈의 하위문화에 나타난 패션 특성

1. 캐주얼즈 패션의 주요 브랜드와 아이템

1) 아우터: 트랙 재킷과 수트, 테크 아웃도어 재킷
캐주얼즈 패션에서 대표적인 아우터 아이템은 선명한 색상 대비가 두드러지는 트랙 재킷(track

jacket)을 비롯하여, 후드 재킷(hooded jacket), 윈드 브레이커(wind breaker), 아노락(anorak), 스노클 파카(snorkel parkas), 카굴 재킷(cagoule/goggle jacket), 레인 재킷(rain jacket) 등의 기능성 아웃도어 재킷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트랙 수트는 캐주얼즈의 대표 룩으로 zip-up) 트랙 재킷과 팬츠를 함께 착용하며, 추운 날씨에는

파카나 코트를 트랙 재킷 위에 덧입는 아우터로 착용하지만, 간절기에는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이너로 폴로 셔츠나 터틀넥과 함께 착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본 논문에서는 아우터로 분류하였다. 『The football factory』와 『The firm』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휠라의 테린다 재킷(Figure 4, 5)을 착용하는데, 이 제품은 휠라에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색으로 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트랙 재킷이다(Figure 12). 트랙 수트는 캐주얼즈 패션 관련 다양한 참고문헌에서 항상 등장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며, 원색의 화려한 칼라 블록과 배색의 파이핑 라인, 트랙 라인, 네크라인과 소매 끝의 컬러 팁 등이 특징적이다(Figure 4~7). 『The Firm』에 등장한 세르지오 타키니의 옐로우 오리온(Orion) 트랙 수트(Figure 6)는 <Figure 13>으로, 엘레세의 트랙 재킷은 <Figure 14>로, 『The business』의 세르지오 타키니 재킷(Figure 7)은 <Figure 15>와 같이 현재 캐주얼즈 패션 매장에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테라스 웨어의 특성상 야외 경기 관람에 적합한 방수, 방풍 기능이 있는 테크 아웃도어 재킷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트랙 재킷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작업복과 유사한 블루종(blouson) 스타일의 싱글 집업 재킷, 아노락과 윈드브레이커, 『Green street』의 데님 트럭커(trucker) 재킷(Figure 2, 11)이 대표적이다. 『Away days』에서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카키 컬러의 아디다스 아노락(Figure 3, 10)을 착용하고 있어서,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캐주얼즈의 유니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롱 아웃도어 재킷은 허벅지를 덮거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추운 날씨에 경기 관람을 할 때 보온과 방풍 효과를 지닌다. 후드 파카는 『Green street hooligans』의 축구 경기 응원 장면에서 등장하는 스톤 아일랜드 재킷(Figure 2, 8)이 테라스 패션을 대표하는데, 소매의 나침반 로고는 당시 캐주얼즈의 표식이었다. 또한 씨피 컴퍼니의 후드에 고글이 부착된 카쿨 재킷(Figure 8)은 작가 이안의 저서 『Casuals』

의 표지로 사용될 만큼 캐주얼즈 패션을 상징하고 있다(Thornton, 2003). 맥 코트(mac coat)는 가벼운 레인 재킷으로 간절기 경기 관람 시 자주 비가 오는 영국 날씨에 필수 아이템이었다(Figure 2, 4, 9). 이상과 같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영화에 나타난 캐주얼즈의 아웃도어 재킷은 주로 네이비, 카키, 베이지 등 뉴트럴 다크 톤의 단색, 기능성 소재와 포켓 디테일, 소매나 가슴에 위치한 브랜드 로고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 브랜드는 스톤 아일랜드, 씨피 컴퍼니, 버버리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하의: 데님, 치노, 코듀로이의 워크팬츠, 트랙 팬츠

데님, 코듀로이, 트윌코튼 소재의 스트레이트핏 팬츠와 트랙 팬츠가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캐주얼즈는 스트레이트핏 바지를 길게 내려 발등을 살짝 덮는 스타일을 보인다. 스킨헤드가 데님 밑단을 롤업하여 닥터 마틴 위커를 신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데님은 대부분 당시 노동 계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리바이스 또는 리 브랜드 제품이며 생지부터 워싱이 된 데님까지 컬러 구분 없이 착용했다(Figure 3, 4, 17, 18). 캐주얼즈의 사회적 계층 특성상, 노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착용하는 워크웨어의 영향도 받았다. 노동자들이 유니폼이나 스포츠웨어로 착용하는 코듀로이 팬츠나 치노 팬츠는 영화 『Away days』, 『Green street hooligan』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다(Figure 19). 데님을 제외한 팬츠의 컬러는 베이지, 카키, 브라운, 블랙 등의 기본 색상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트랙 팬츠의 경우 휠라의 테린다 트랙 팬츠(Figure 5, 16)와 같이 트랙 재킷과 함께 셋업(set-up)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밝고 선명한 색상, 옆선에 배색 또는 로고 트리밍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이 대표적이다(Table 1).

3) 상의: 폴로 셔츠, 터틀넥 티셔츠, 브이넥 스웨터, 가디건

캐주얼즈의 상의(Table 2)는 아우터와는 달리

특정 브랜드 로고와 화려한 원색의 디자인이 부각되었다. 단색에 선명한 로고와 레터링, 고채도 원색의 칼라 블록과 스트라이프 배색이 부각되는 폴로 셔츠가 대표 아이템이다. 스킨헤드에 이어 캐주얼즈 시대가 오면서 폴로 셔츠의 색상은 더 다채로워졌고, 선이 굵은 럭비 스트라이프 패턴도 등장하였다. 영화에서는 프레드 페리(Figure 20, 25), 엘레세, 휠라(Figure 21, 26), 휠라 등의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도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베네통(Benetton)의 럭비 셔츠는 휠라, 엘레세 및 세르지오 타키니와 같은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브랜드와 함께 『Away days』와 『The football factory』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타일이다(Figure 23, 27). 실제 80년대 초 캐주얼즈는 휠라의 테린다 트랙 재킷 안에 베네통의 럭비 폴로 셔츠를 연출했다. 시그니처 색상은 흰색과 파랑 또는 흰색과 초록이며 주로 흰색과 대비되는 굵은 스트라이프가 몸통 전면과 소매를 가로지르고, 길 산즈(Gil Sans) 폰트에서 영감을 얻은 상징적인 베네통 산스(Benetton Sans) 로고도 전면에 나타났다. 럭비 셔츠가 캐주얼즈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가 되면서, 베네통의 로고도 80년대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다(Taylor, 2019).

니트 웨어는 베스트(vest), 스웨터(sweater), 가디건(cardigan)으로 나타났다. 캐주얼즈는 대체로 브이넥 디자인을 선호하였고, 니트 웨어 안에 입은 셔츠의 칼라가 잘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니트는 단색과 더불어 아가일, 스트라이프 패턴의 아이템이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스포츠웨어의 밝고 선명한 색감이 주로 사용되어 경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The football factory』, 『The firm』에서도 다양한 색상의 아가일 패턴 니트 웨어를 착용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Figure 23, 24). 특히 프링글의 옐로 브이넥 스웨터에 블루 아가일 패턴은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당시의 빈티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Figure 24, 29). 롤 넥(roll neck)은 캐주

얼즈의 트랙재킷, 아노락, 폴로 셔츠, 그리고 스웨터 안에 착용하는 레이어링 아이템으로 자주 등장한다. 『The business』에서 등장인물들이 착용한 롤 넥에서 휠라의 사각형 이니셜 자수 로고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휠라의 기본 아이템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2, 28).

4) 트레이너(trainer)

트레이너와 스트레이트핏 데님의 조합은 당시 영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캐주얼즈 패션을 상징했다. <Table 3>에서는 영화에 등장한 트레이너와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보여주며, 디자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트레이너라고 불렀던 신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오면서, 현재는 클래식 스니커즈라고 불린다. 신발의 높이가 복사뼈 위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신발 등이 낮고 형태가 날렵하며 끈으로 꼭 조여매는 형태이다. 트레이너를 용도와 디자인 특성으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에서 착용했던 흰색 운동화이다. 캐주얼즈가 경기장에 출입하기 위해 당시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의 옷차림을 따라하면서, 테니스 코트에서 신는 운동화를 착용하기 시작했었다. 독일 회사인 아디다스는 캐주얼즈에게 매우 자주 착용되는 브랜드였는데, 그중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은 포레스트 힐(Forest Hills)과 스탠 스미스이다. 스탠 스미스는 1971년 당시 세계 1위 테니스 선수인 스탠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1978년 론칭된 이후, 줄 곳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특별한 스니커즈로 여겨져 왔다(Musinsa, 2014). 아디다스 뿐만 아니라 테니스 선수 보그 엘리엇(Borg Eliot)이 착용하고 우승을 차지해 유명해진 디아도라의 보그 엘리엇 트레이너와 리복(Reebok)의 클래식 코트 시리즈(classic court series)도 인기를 끌었다(Taylor, 2021) (Figure 31, 34).

둘째, 축구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공을 차기 위

한 축구화 목적으로 디자인된 축구용 스니커즈이
다. 납작하고 얇은 형태의 신발 앞 코에 고무가 덧

대어져 있어 신발 내구성을 높여주며, 갑피는 가죽
또는 스웨이드이고 유연한 고무 밑창으로 이루어져

Table 1. Outer & bottom fashion images & design characteristics from casuals subculture.

Casuals fashion images: jacket & pants				Fashion brands and design characteristics
Movie image				Representative outer brands - Fila - Adidas - Sergio Tacchini - Stone Island - CP company - Ellesse
	Figure 2. Outer jackets. From Imdb. (n.d.b). https://www.imdb.com	Figure 3. Anorak & pants. From Imdb. (n.d.a). https://www.imdb.com	Figure 4. Track suits. From Imdb. (n.d.e). https://www.imdb.com	
				Representative outer items - Track jacket - Mac coat, - Hooded jacket - Snorkel parka - Windbreaker - Anorak - Cagoule Jacket
	Figure 5. Track suits. From Imdb. (n.d.d). https://www.imdb.com	Figure 6. Track suits. From Imdb. (n.d.d). https://www.imdb.com	Figure 7. Track suits. From Imdb. (n.d.c). https://www.imdb.com	
				Design features - Vivid colors - Contrast color block - Contrast piping - Dark tones for over coat - Zip-up - Embroidered wappen or logo - Goggled hood - Technical outdoor elements
	Figure 8. Cagoule jacket. From Pinterest. (n.d.a). https://www.pinterest.it	Figure 9. Mac coat. From Pinterest. (n.d.b). https://www.pinterest.it	Figure 10. Cagoule anorak. From Discountonline. (n.d.). https://discountonline.co.uk	
				Figure 11. Trucker jacket.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Brand image				Figure 15. Dallas track top.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2. Terrinda track top.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3. Orion track top. From Taylor. (2019).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4. Rimini track top.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6. Terrinda track pants.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7. Original Bulldog 501 Jeans.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8. Original black 501 jeans.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19. Terrace corduroy pants. From Taylor. (2018).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Representative pants brands - Levi's - Lois - Fila
				Representative pants items - Denim/Chino/ Corduroy/Cargo Pants - Track pants
				Design features - Straight/loose fit - Raw/washed denim - Workwear pockets - Side stripe joggers

있다. 대표적인 모델에는 아디다스의 가젤(Gazelle)과 삼바(Samba)가 있다(Adidas, n.d.)(Figure 30, 31, 33). 영화 『The Firm』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아디다스의 그랜드 슬램(Grand Slam) 및 트림 트랩(Trimm Trab)과 같은 모델 또한 캐주얼즈 패션을 대표하는 트레이너가 되었다. 모두 아디다스의 시그니처 삼선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알려져 왔다. 이러한 캐주얼즈 패션을 기점으로 특정 스니커즈의 애호가들이 생겨나며 역사상 최초로 스니커즈가 개인의 패셔너블함을 상징하는 계기가 되었다(Eror, 2015).

5) 액세서리: 모자, 머플러

캐주얼즈는 계절 특성상 여름보다는 겨울에 다

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그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볼 캡(ball cap), 비니(beanie)와 같은 모자와 머플러는 주로 추운 날씨에 경기를 관람할 때 체온 유지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방한용 아이템들이었다. <Table 3>과 같이 캐주얼즈는 스톤 아일랜드, 폴앤삭과 같이 브랜드 로고가 잘 드러나거나, 버버리, 아쿠아쿠스텀과 같이 브랜드 고유의 체크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 그 패턴이 잘 드러나는 디자인의 머플러나 모자를 착용하였다(Figure 35~37). 영화에서도 의류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브랜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2). 이는 캐주얼즈가 브랜드 로고나 패턴이 분명한 액세서리를 통해 고가의 브랜드를 착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이를 동조와 과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나타낸다.

Table 2. Top fashion images & design characteristics from casuals sub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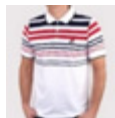









Casuals fashion images: top			Fashion brands and design characteristics			
Movie Image						
	<p>Figure 20. Anorak & polo. From Imdb. (n.d.a). https://www.imdb.com</p>	<p>Figure 21. Polo. From Imdb. (n.d.c). https://www.imdb.com</p>	<p>Figure 22. Roll neck. From Imdb. (n.d.d). https://www.imdb.com</p>	<p>Representative top bran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la - Sergio Tacchini - Benetton - Pringle of Scotland 		
						
	<p>Figure 23. Rugby shirts & cardigan. From Imdb. (n.d.e). https://www.imdb.com</p>	<p>Figure 24. Argyle Jumper. From Imdb. (n.d.d). https://www.imdb.com</p>		<p>Representative top ite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o shirt - Roll neck top - Rugby shirt - Cardigan 		
Brand Image						
	<p>Figure 25. Polo shirt. From Fred Perry. (n.d.). http://www.fredperrykorea.com</p>	<p>Figure 26. Polo shirt. From Taylor. (2019). www.80scasualclassics.co.uk</p>	<p>Figure 27. Rugby shirt. From Taylor. (2019). www.80scasualclassics.co.uk</p>	<p>Figure 28. Roll neck. From Taylor. (2019).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p>	<p>Figure 29. Argyle jumper. From Pringle of Scotland. (n.d.). https://www.etsy.co.uk</p>	
			<p>Design feat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vid color - Contrast color block - Bold stripe - Fold over collar - Tipped collar - Stripe, argyle - Embroidered logo 			

Table 3. Shoes & accessories fashion images & design characteristics from casuals subculture.

Casuals fashion images: shoes & accessories					Fashion brands and design characteristics
Movie image		Figure 30. Adidas trainers. From Imdb. (n.d.a). https://www.imdb.com			Representative brands - Adidas, Diadora, - Paul&Shark, Stone Island, Burberry
		Figure 32. Hats & mufflers. From Imdb. (n.d.b). https://www.imdb.com			
					Representative items - Trainers, tennis sneakers, soccer sneakers - Muffler, baseball cap, beanie, bucket hat
Brand image	Figure 33. Gazelle. From Taylor. (2021).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34. Borg Elite. From Taylor. (2021).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	Figure 35. Ball cap. From Paul and Shark. (n.d.). https://www.paulandshark.com	Figure 36. Beanie. From Stone Island. (n.d.). https://www.stoneisland.com	
					Design features - Adidas three stripes - Lace up, heel cup - Contrast color - Leather upper & rubber sole - Brand logo emblem patch - Check Pattern - Signature plaid
				Figure 37. Signature check muffler. From Burberry. (n.d.). https://uk.burberry.com	

2. 캐주얼즈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적 특성

1) 캐주얼 정신의 가시적 발현: 축구 팬덤의 부족주의에 기반한 뉴 테라스 웨어

캐주얼즈 패션은 축구 경기장 패션을 의미하는 테라스 웨어에서 발현되었다. 테라스 웨어는 경기장을 지배하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축구 마니아와 홀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캐주얼즈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캐주얼즈 패션은 축구 팬덤의 부족주의와 동지애를 나타내는 일종의 유니폼이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별 짓는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Magee, 2017). 당시 캐주얼 현상은 같은 팀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상대팀에 대항하여 스타일과 폭력으로 집단성을 드러내며 영역을 확보하였던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당대의 스타일은 지속적인 유산이며 폭력과 갈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헌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캐주얼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평등주의적인 캐주얼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톤 아일랜드의 로고 배지와 같은 브랜드 표식은 캐주얼 정신을 나타내고 결속시키는 상징으로 작용하였다(Error, 2015).

축구는 팬들 간의 강렬한 동지애와 단합력을 만들어내는 단체 스포츠이다. 하지만 수많은 서포터들이 각각 지지하는 축구팀에 보내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응원만큼, 폭력적인 라이벌리즘 또한 만연했다. 이러한 폭력성은 캐주얼즈 패션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캐주얼즈가 의도적으로 상대팀과 비슷한 옷차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The firm』에서 맨체스터와 밀월 서포터즈들이 큰 공터에서 대규모 비무장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팀 모두 대부분이 웬라, 엘레세, 세르지오 타

키니 등의 화려한 트레이닝 수트와 윈드브레이커를 착용하고 있다(Figure 5, 6). 이들은 당시 유행하는 브랜드 아이템 또는 다수가 선호하는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상대팀과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어 좀 더 수월하게 상대팀에 잠입하고자 하였다. 상대팀이 거점으로 이용하는 술집에 침투하는 것이 성공하면, 외부 동료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빼내어 오기도 하였다. 『The football factory』에서는 주인공을 상대팀 서포터즈들이 자주 가는 술집 가까이에서 접근시켜 동태를 살피고, 주인공이 보낸 신호를 받은 동료들이 달려들어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캐주얼즈는 상대방에게 홀리건처럼 보이지 않고 침투하기 위해 캐주얼즈 패션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영국의 축구 클럽들은 각자 개별적인 패턴, 색, 로고, 유니폼과 같은 상징물이 있다. 하지만 캐주얼즈는 정품이 아닌 복제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반 팬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자신이 응원하는 클럽 색상의 유니폼 대신 캐주얼즈 패션을 선택하였다. 『Away days』에서는 길거리에서 보이던 아디다스 카쿨 재킷, 프레드 페리 폴로, 리바이스 스트레이트 팬츠, 아디다스 삼바를 착용한 30~40 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웨스트 브롬(West Brom)의 경기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3, 30). 이는 캐주얼즈가 그들의 복장을 통해 가시적으로 구별된 집단성과 결속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캐주얼즈 패션은 축구 경기장에서 홀리건 팬덤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자신과 비슷한 동지를 알아보고 뭉치기 위한 집단 성향이 반영되어 로고나 패턴이 눈에 띄는 휠라, 엘레세, 스톤 아일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아디다스 등 특정 브랜드를 강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에도 캐주얼즈 하위문화를 구별 짓는 패션의 공통적 특성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의 70, 80년대 브랜드와 스타일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이

라고 할 수 있겠다(Magee, 2017).

2) 유럽 상류층 스포츠 패션 문화와 물질주의 동경: 모방과 과시의 저항성

80년대 캐주얼즈의 패션 문화는 당시 축구 서포터들이 유럽을 여행하며 구매한 고가의 이탈리아 및 프랑스 디자이너 제품을 입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축구 팬들이 유럽 원정에 참여할 때 마다 팀 색상을 대표하는 새로운 디자인과 브랜드를 영국에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80s casual”, n.d.). 캐주얼즈는 복제품이 아닌 오리지널 디자이너의 상품을 구매하여 착용하는 문화를 진정성 있고 실제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중점을 두었다. 특별히 품질과 스타일에 관한 엄격한 기준 하에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며 의복을 선택하는 그들만의 드레스 코드로 하나가 되었다(MacKenzie, 2019).

영국의 대표적 현대 미술관,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의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근무하며, 런던 예술 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aint Martin)의 강사, 바이스 스타일(Vice style)의 프리랜서 작가이자 편집자인 다리오슈 하지-나자피(Daryoush Haj-Najafi)는 캐주얼즈의 성향에 관해 물질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파업을 일으켜 투쟁했던 많은 노동자 계급은 캐주얼즈를 통해 인생을 즐기고자 했다는 것이다. 즉, 캐주얼즈의 허무주의는 세련된 유럽의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환상에 빠진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캐주얼즈는 당시 애국을 호소하던 우익 스킨헤드와 달리, 영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다른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을 패션으로 구체화하였다(Dresser, 2017). 이들은 고가의 유럽 스포츠웨어를 착용함으로써 영국 노동자 계급의 진부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전통적인 브랜드의 아이템을 선호하여 문화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타일을 추

구하였다.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던 프레드 페리는 당시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인 테니스와 부유한 중산층을 상징하던 프레퍼 룩의 레이블이었다. 특히 프레드 페리의 슬림핏 폴로는 새로움의 상징으로, 당시 모즈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이기도 하였다. 프레드 페리는 당시 세련된 스타일로 다른 유사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위문화 집단인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축구 팬들에게도 중요한 브랜드가 되었고, 캐주얼즈를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Dresser, 2017).

캐주얼즈는 비슷한 시기의 핑크, 스킨헤드 하위문화 집단과는 달리 모방과 과시를 통해 사회 저항성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축구 문화에서 비롯된 캐주얼즈의 행동이 폭력적이었을 지라도, 의복은 세련된 취향을 지닌 상류층을 모방한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착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캐주얼즈 패션이 열성 축구 팬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동화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상대팀보다 좀 더 트렌디한 룩을 입고자 희소하고 비싼 아이템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노동 계층이었던 캐주얼즈의 상류층 패션에 대한 동경과 과시를 반영한다.

3) 축구 팬덤 문화에서 발생한 하입 스포츠웨어(hype sportswear) 패션

1970년대 후반 영국 축구 클럽의 성공으로 젊은 팬들은 경기를 위해 해외로 유럽을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고 이국적인 스포츠웨어에 대한 취향을 개발하였다. 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져온 테라스 패션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멋지고 쿨 함을 뜻하는 하입 스포츠웨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Football casuals”, n.d.). 당시 해외 원정을 나간 축구 팬들이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유럽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계속해서 들여오며, 스타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영화와 문헌에

서 재킷, 팬츠, 트랙 수트, 트레이너 등 아이템마다 선호되는 특정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독점 브랜드 또는 개개인이 소유한 의류 품목의 소유권을 둘러싼 경쟁적인 거리 문화를 만들며 다양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영국에 들어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스포츠웨어 패션은 다른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게 된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및 러시아의 팬들이 방문하여, 캐주얼즈의 스타일을 주목하고 다시 돌아가 모방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스포츠웨어 패션의 확산을 촉진했다(Lee, 2016).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은 80년대 전후 영국 리버풀 홀리건을 비롯하여 많은 축구 마니아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당대의 유명한 테니스 스타처럼 입는 고급스러운 스포츠웨어를 추구하는 캐주얼즈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The firm』에서는 주인공 덤(Dom)이 스포츠웨어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통해 80년대 캐주얼즈 패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캐주얼즈의 하위문화는 80-90년대까지 지속되며 디자이너 브랜드 스포츠웨어 열풍의 주역이 되었고, 스포츠웨어가 국제화, 대중화되면서 현대 패션에서 힙(hip)한 스포츠 스트리트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Burton, 2017).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문화 예술 분야뿐 아니라 패션 산업에 깊게 침투한 스포츠 스트리트 트렌드의 영향과 유래를 다양한 문헌과 대표적인 영상자료를 통해 탐색하며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패션에서 그간 주요 하위문화로 인식되지 않아 선행연구가 부족했으나, 80년대 전후 영국의 축구 팬덤 문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캐주얼즈의 하위문화를 고찰하고, 이를 패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캐주얼즈 패션은 70년대 후반 테라스 웨어를 중심으로 등장한 스타일의 움직임으로, 고가의 유럽 디자이너 스포츠 의류 착용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축구 서포터즈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은 당시 영국 노동자 계층이자 축구 마니아 집단의 드레스 코드에서 시작되어 이후 많은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의 유행을 주도하였고, 현대 스트리트 패션에서 뉴트로 스포츠 패션 트렌드의 영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전후 영국의 홀리건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대표적인 영화 5편과 다큐멘터리 1편을 중심으로 당시 캐주얼즈 패션을 구성하는 주요 브랜드와 아이템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하위문화로서 캐주얼즈 패션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결과,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에서 당시 고가의 하이엔드 스포츠웨어 브랜드들과 디자이너 레이블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로고와 문양에서 브랜드 상징성이 뚜렷한 아이템을 착용하였다. 개별 아이템 측면에서는, 야외 경기 관람과 무리를 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캐주얼즈의 문화 특성상 의류의 기능성도 중요했기 때문에 골프, 테니스 관련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복, 특히 폴로 티셔츠와 트랙 슈트를 선호하였다. 또한, 윈드브레이커, 트랙 재킷, 베스트 등 상의에서는 스포츠웨어의 주요 디자인 요소인 컬러 블록과 아가일, 줄무늬 패턴이 특징적이며, 추운 날씨에는 기능성 아웃도어 재킷과 후드 파카를 아우터로 활용하였다. 하의는 스트레이트 핏 데님, 코듀로이 팬츠 등 워크 웨어로 대표되는 아이템을 착용했으며, 신발은 삼선 디자인이 뚜렷한 아디다스 축구용 스니커즈를 주로 착용하였다. 액세서리는 체크 패턴이나 브랜드 로고와 같이 브랜드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볼 캡, 비니, 머플러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은 다음과 같은 특수

성과 의의를 지닌다. 첫째, 80년대 전후 축구 홀리건의 드레스 코드를 상징하며, 집단주의적 동지애를 표현하는 일종의 유니폼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캐주얼즈가 특정 브랜드와 아이템을 선택함으로써 패션을 통해 가시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축구 팀에 대한 충성심과 광적인 애착으로 단합되는 캐주얼 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은 상류층 패션의 모방과 과시를 통한 사회 저항성 표출 수단이 되었다. 캐주얼즈는 축구 문화에서 비롯된 폭력적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 레이블의 스포츠웨어를 착용함으로써 영국 노동자계급의 진부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유럽의 비계급사회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세련된 취향과 경제력을 추구하였다. 셋째,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은 축구 팬덤 문화에서 발생한 하입 스포츠웨어 패션으로 단순한 운동복이 아닌 당시 이국적 취향의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포츠웨어 스타일의 개발을 의미한다.

영국의 대중 문화와 하위문화의 많은 부분이 축구, 음악, 패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80년대 말 애시드 하우스(acid house), 레이브(rave), 매드체스터(madchester)와 같은 음악 장르와 함께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문화가 대세를 이루며, 폭력적인 캐주얼즈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캐주얼즈 패션은 하나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일상화되었다(Kim, 2018). 영국에서는 모즈가 프레드 페리를 애용하고, 캐주얼즈가 축구 문화에 프레드 페리를 뿌리내리며, 저지와 운동화 등의 스포츠웨어를 거리에 입고 나오면서 90년대 스포츠 스타일로 진화되었다. 특히 90년대 초반의 레이브 문화로 대표되는 영국의 패션은 컬러풀한 오버 사이즈의 스포츠웨어가 유행이었고, 힙합,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등의 유행과 더불어 스포츠웨어는 더욱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다(Dresser, 2017). 이후 점차 다양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테라스를 지배하게 되면

서, 궁극적으로 축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보다 스타일과 브랜드로서 캐주얼즈의 패션 문화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패션계에서 90년대 레트로와 스트리트 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캐주얼즈 패션에서 사랑받았던 휠라, 스톤 아일랜드, 아디다스, 라코스테와 같은 브랜드들이 재 주목을 받고, 과거 클래식 모델들의 인기가 부활하면서 원색의 컬러 블록, 로고 플레이와 같은 상징적 디자인 요소가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캐주얼즈 스타일은 버질 아블로, 고샤 루브친스키와 같이 스트리트 미학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아디다스, 카파, 휠라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뿐 아니라 버버리, 루이 비통과 같은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와 하위문화를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며 현대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 연구는 현대 스포츠 스트리트 패션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콘셉트 개발과 디자인 기획에 중요한 문화적 영감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영국 캐주얼즈의 하위문화만을 중심으로 패션을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나, 추후 홀리건 패션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서 테라스 패션으로 착용되는 캐주얼즈 패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캐주얼즈의 하위문화 패션이 반영된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디자인 특성 관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ferences

- 80s casual and Ellesse heritage vintage sport. (n.d.). *Stuarts London*. Retrieved March 17, 2023, from <https://www.stuarts-london.com/80s-casual-and-ellesse-heritage-vintage-sport-i73>
- Adidas. (n.d.). Originals. *adidas.co.kr*.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www.adidas.co.kr/>
- Adz, K., & Stone, W. (2018). *This is not fashion: Streetwear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Thames & Hudson.
- Borgeson, K., & Valeri, R. (2017). *Skinhead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1st ed.). New York: Routledge.
- British style genius. (2013, August 19). *BBC*. Retrieved July 14, 2023, from <https://www.bbc.co.uk/britishstyle/genius/content/22265.shtml>
- Burberry. (n.d.). Check cashmere scarf. *uk.burberry.com*.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uk.burberry.com/check-cashmere-scarf-p80767951>
- Burton, R. K. (2017). *Rebel threads: Clothing of the bad, beautiful & misunderstood*.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 Chaney, D., & Goulding, C. (2016). Dress, transformation, and conformity in the heavy rock subcultur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 155-165. doi:10.1016/j.jbusres.2015.07.029
- Didcock, B. (2005, May 8). Casuals: The lost tribe of Britain They dressed cool and fought dirty, but their impact on fashion has been largely ignored. Now they are making a comeback . . . in bookshops. *The Herald*. Retrieved April 11, 2021, from <https://www.heraldscotland.com/news/12493851.casuals-the-lost-tribe-of-britain-they-dressed-cool-and-fought-dirty-but-their-impact-on-fashion-has-been-largely-ignored-now-they-are-making-a-comeback-in-bookshops>
- Discount online. (n.d.). Wedowhatwewant: Adidas "Awaydays" cagoule was released in. *discountonline.cheapsalesoutlet2023.com*.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discountonline.cheapsalesoutlet2023.com/menuitem?c=adidas+cagoule+awaydays&id=3>
- Dresser. (2017, September 11). 노동자 계급의 '캐주얼즈'와 프레드 페리 01 [Working class 'Casual' and Fred Perry 01]. *Terrace Chronicle*. Retrieved March 15, 2021, from <https://jiyouuu.tistory.com/827>
- Ebay. (n.d.). True Vintage Pringle Argyle Diamond Jumper 40" Med 80s Casual. *ebay.co.uk*.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www.ebay.co.uk/itm/325824176786?_trkparms=amclksrc%3DITM%26aid%3D1110006%26algo%3DHO MESPLICE.SIM%26ao%3D1%26asc%3D20200818143230%26meid%3D5446ba4ca25a4d6794823b8fc8039e44%26pid%3D101224%26rk%3D5%26rkt%3D5%26sd%3D175909480077%26itm%3D325824176786%26pmt%3D0%26noa%3D1%26pg%3D4429486%26algv%3DDefaultOrganicWebV9BertRefreshRanker%26brand%3DPringle&_trksid=p4429486.c101224.m-1
- Error, A. (2015). How "Terracewear" went from football casuals to Drake's wardrobe. *Highsnobility*. Retrieved March 30, 2021, from <https://www.highsnobility.com/p/football-casual-fashion/>
- Fazal, M. (2018, March 22). Casual fridays: The legacy of Australian hooligan culture. *Vice*. Retrieved March 30, 2021, from <https://www.vice.com/en/article/paxdgy/casual-fridays-the-legacy-of-australian-hooligan-culture>
- 'Football casuals: How to wear terrace fashion'. (n.d.). *Fashionbean*. Retrieved March 30, 2021, from <https://www.fashionbeans.co>

- m/article/terrace-fashion-guide/
 Fred Perry. (n.d.). Hero of the tennis world "Frederic John Perry". *fredperrykorea.com*.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www.fredperrykorea.com/heritage/main.asp#y1960>
- Heo, U. H. (n.d.). 스포츠 브랜드의 '탈(脫) 운동복' 바람! 데일리룩 통해 일상으로 침투 [Sports brand's "out of the tracksuit" wind! Penetrating into daily life through daily look]. *FashionN*. Retrieved March 25, 2021, from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06&number=27243&page=2&sel=all&search=%EB%94%94%EC%8A%A4%EB%9F%BD%ED%84%B0&sel_cat=
- Hewitson, D. (2008). *The Liverpool boys are back in town: The birth of terrace culture*. Liverpool: The Bluecoat Press.
- Hough, I. (2007). *Perry boys: The casual gangs of Manchester and Salford*. UK: Milo Books.
- Imdb. (n.d.a). Awaydays. *Imdb*. Retrieved January 3, 2023, from https://www.imdb.com/title/tt1137436/?ref_=vp_vi_tt
- Imdb. (n.d.b). Green street hooligans. *Imdb*. Retrieved January 7, 2023, from https://www.imdb.com/title/tt0385002/?ref_=r_vi_tt
- Imdb. (n.d.c). The business. *Imdb*. Retrieved January 4, 2023, from https://www.imdb.com/title/tt0429715/?ref_=tt_mv_close
- Imdb. (n.d.d). The firm. *Imdb*. Retrieved January 5, 2023, from https://www.imdb.com/title/tt1313113/?ref_=fn_al_tt_3
- Imdb. (n.d.e). The football factory. *Imdb*. Retrieved January 6, 2023, from https://www.imdb.com/title/tt0385705/?ref_=fn_al_tt_1
- Kim, C. O. (2016, June 15). 홀리건의 유례... 테러리즘만큼 위험한 홀리건리즘 [The example of a hooligan... Hooliganism is as dangerous as terrorism]. *Kukmin Ilbo*.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m.knib.co.kr/view.asp?arcid=0010705985>
- Kim, E. Y. (2021, December 19). 루이 비통을 바꾼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의 '3% 접근법' [Designer Virgil Ablo's '3% approach' to changing Louis Vuitton]. *ChosunBiz*.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ashion-beauty/2021/12/19/HEZZL3XDF5GAPOLZYG6H46UK5M/>
- Kim, J. H. (2017, July 24). 스포츠 브랜드, 스트리트 브랜드의 이유 있는 만남 [A reasonable meeting of sports brands, street brands]. *Fashion Seoul*. Retrieved April 5, 2023, from <https://fashionseoul.com/147695>
- Kim, J. H. (2015, February 24). [축구상식백과]36. '거리의 난봉꾼' 홀리건 탄생 비화 [[Soccer common sense encyclopedia] 36. The story behind the birth of a hooligan in the street]. *Sports Chosun*.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76/0002686698>
- Kim, K. H. (2005, June 2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노동자들이 만든 '붉은 악마' [Manchester United 'Red Devils' created by workers]. *Voice of the people*.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vop.co.kr/A00000025669.html>
- Kim, N. Y. (2018, June 28). History 101: 월드컵 특집, 축구컬처와 패션의 상관관계 [History 101: world cup special, correlation between soccer culture and fashion]. *Visla Magazine*. November 1, 2022, from <https://visla.kr/feature/77186/>
- Kim, Y.-K. (2006). Cross cultural approach to the red devil and hooliga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5(4), 49-59.
- Lee, J. S. (2013). *킥 더 무비* [Kick the movie]. Seoul: Misodeul.
- Lee, J. W. (2016, June 20). 이정우의 스포츠랩소디 35 잉글랜드 축구와 홀리건이즘 (2) [Lee Jung-woo's sports rhapsody 35 English football and hooliganism(2)]. *Koreanweekly*.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koweeekly.co.uk/news.php?mode=print&num=9256>
- Ma, A. R. (2018, January 15). 버버리, 고샤 루브친스키 협업한 18AW 컬렉션 공개 [Burberry unveils 18AW collection collaborated with Gosha Lubczynski]. *Moneytoday*. Retrieved March 25, 2021,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11517130783571>
- MacKenzie, M. (2019). Football, fashion and unpopular culture: David Bowie's influence on Liverpool football club casuals 1976-79. *Celebrity Studies*, 10(1), 25-43.
- Magee, W. (2017, July 11). Why is casual culture still relevant in football and fashion?. *Vice*. Retrieved March 25, 2021, from <https://www.vice.com/en/article/gybinq/why-is-casual-culture-still-relevant-in-football-and-fashion>
- Musinsa. (2014, October 22). 천천히 읽는 일곱 스니커즈 이야기 [Seven sneaker stories to read slowly]. *Design Jungle*. Retrieved March 15, 2023, from <https://www.jungle.co.kr/magazine/10854>
- Oh, K. C. (2022, December 13). 패션 시장에 퍼져가는 스포츠웨어 [Sportswear is spreading in the fashion market]. *Apparel News*. Retrieved April 5, 2023, from 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02519
- Osgerby, B. (n.d.). Football and fashion. *Museum of Youth Culture*. Retrieved February 16, 2021, from <https://museumofyouthculture.com/casuals/>
- Paul and Shark. (n.d.). Cotton baseball hat. *paulandshark.com*.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www.paulandshark.com/rw1_en/cotton-baseball-hat-with-iconic-badge-rw1-en-11317101.html
- Perryman, M. (2013). *Hooligan wars: Causes and effects of football violence*. Edinburgh and London: Mainstream Publishing.
- Pringle of Scotland. (n.d.). Our story. *pringleofscotland.com*.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pringleofscotland.com/pages/our-story>
- Pinterest. (n.d.a). C.P. Company: The original Italian sportswear brand. *pinterest.it*.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www.pinterest.it/pin/828592031463129679/>
- Pinterest. (n.d.b). Stone Island coats and jackets. *pinterest.it*.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www.pinterest.it/pin/967429563679812615/>
- Redhead, S. (2004). Hit and tell: A review essay on the soccer hooligan memoir. *Soccer & Society*, 5(3), 392-403. doi:10.108

0/1466097042000279625

- Redhead, S. (2012). Soccer casuals: A slight return of youth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Youth and Family Studies*, 3(1), 65-82. doi: 10.18357/ijcyfs31201210474
- Sergio Tacchini. (n.d.). *sergiotacchini.co.kr*.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sergiotacchinishop.co.kr/shopinfo/company.html>
- Standing in football. (n.d.). *Football Stadiums*. Retrieved April 10, 2021, from <https://www.football-stadiums.co.uk/articles/standing-in-football/>
- Stone Island. (n.d.). N10B5. *stoneisland.com*. Retrieved February 1, 2023, from https://www.stoneisland.com/us/stone-island/hat_cod46937938qg.html#dept=ccssrprv
- Taylor, L. (2017, August 11). Neil Primett of 80s casual classics talks to Sapeur one step beyond. *80s Casual Classics*.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blog/neil-primett-80s-casual-classics/>
- Taylor, L. (2018, March 20). An interview with an 80s casual classics collector: Colin Jobling. *80s Casual Classics*. Retrieved November 1, 2022, from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blog/colin-jobling-80s-sportswear-collector/>
- Taylor, L. (2019, September 15). The return of an 80s casual classic: The Benetton rugby shirt is back. *80s Casual Classics*. Retrieved August 13, 2020, from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blog/benetton-rugby-shirt-casuals/Zuckerman>
- Taylor, L. (2021, February 20). Diadora Borg Elite: It was all about representing the Elite. *80s Casual Classics*. Retrieved August 13, 2020, from <https://www.80scasualclassics.co.uk/blog/diadora-borg-elite-casuals/>
- Thornton, P. (2003). *Casuals: Football, fighting and fashion: The story of a terrace cult*. UK: Milo books.
- 전통 스포츠패션 브랜드, 트렌디하게 부활하다 [Traditional sports fashion brands revive in a trendy way]. (2017, July 26). *FromA*. Retrieved March 30, 2023, from <https://froma.co/articles/465>

Fashion Characteristics of the Casual Subculture in the 1970s and 1980s Represented in British Soccer Hooligan Movies

Yoon, Doyeon · Suh, Sungeun⁺

Bachelor, Dept. of Fashion Design, Gach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Gach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casual subculture as British football culture derived from the hooligan, investigated various literature and video materials on football culture in England from the late 1970s to the early 1990s. In particular, a total of 6 films dealing with the culture of football supporters in England around the 1980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the casual subculture and fash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ix films made in the early 2000s express the British hooligan culture and social background very realistically in a detailed manner, and the casual subculture fashion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was directly or indirectly reproduced. In this study, main design characteristics and specific brands that appeared in casuals fashion were derived by representative fashion items from the films and casuals clothing brand stores. Casuals fashion is a visible expression of the casual spirit showing the fellowship of the British football mania group, represents longing for materialism and sports fashion culture of the European upper-class, promotes spread of the fashion trend of football fandom culture, and gives an inspiration for modern sports street fashion.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the casual subculture, which had not been recognized as a major subculture, in terms of fashion, and analyzed the major brands and style characteristics that established casuals fashion as a new terrace wear.

Key words : casuals, hooligan, casual subculture fashion, terrace wear, sports street style

